

순창행복플러스타운 조성 탄력

순창군,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주거·복지·일자리 연결한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

순창군이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총사업비 255억 원을 투자해 주거·복지·일자리가 어우러진 '순창행복플러스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선정을 위해 연초부터 두 차례 실무협의회, 소재지권 주민설명회, 국토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했다. 최영일 군수는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국토부 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도 전문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대상지는 순창읍 순화리 720번지 일원으로, 총면적 약 38,605㎡ 규모다.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20호, 공공 임대주택 40세대, 경찰서 관사 18세대 등 총 78세대가 공급되며, 커뮤니티센터 비롯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생활서비스 분야 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러한 정주단지 조성은 최근 주거



순창군이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순창군은 최근 3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와 청년·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군은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현실에 맞는 정주단지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와 복지, 일자리를 포함한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도시형 정주 기반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한 농촌 지역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박차

남원시, 민관 협의회 통해 시설 구축·운영 방안 등 구상

남원시는 2024년 선정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남원시 곤충산업 민관 협의회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시설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을 농가들과 함께 구상해 나가고 있다.

남원시 곤충산업 민관 협의회는 시 신성장산업과를 주축으로 관내 밀원사육 농가와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정례화된 회의를 통해 곤충산업 거점 단지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을 함께 소통·협력하고 있다.

특히, 남원형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은 거점 단지 사육 지원 체계와 농가 위탁사육 체계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통해 곤충산업 거점 단지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요구된다.

올 3월 2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16일 3차 회의까지 진행해왔으며, 농가 조직과 강화 방안, 곤충양 공 급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

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여러 단면과제로 회의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산업 모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농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 소비자, 전문가 의견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완성도를 높여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갈색거저리 유충(밀원, 고소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산업이 안정화되면 흰점박이꽃무지(굴뚝이), 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등 다른 산업 곤충의 활성화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며, 소재 원료 발굴을 통해 산업 분야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9일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곤충산업 거점 단지 선정 지지체가 모여 곤충산업의 규모화와 체계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발족식을 시작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성공적인 거점 단지 조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발달지원 공모 선정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삼성복지재단의 후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5년 영유아 발달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남원시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범사업은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총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남원 센터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내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지원 및 문제 행동 평가, 상담·교육, 사후 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농촌 지역 영유아들에게 발달 지원 및 정서 행동 문제에 대한 조기 중재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아이의 행복을 실현하는 맑은 미래, 남원'이라는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하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신덕면 내량지구 주거환경 개선 본격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본격 추진...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임실군이 신덕면 내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덕면 내량지구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20일 가진 신덕면 내량마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는 내량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군 관계자와 주민, 설계 용역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후주택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 재래식 화장실 개선,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들이 최소한 누려야 할 정주 여건 인프라를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내량마을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20여억원(국비 15억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임실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덕면 내량지구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착수보고회에서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제안 사항도 공유됐다.

주민들은 이번 사업이 마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군은 내량마을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사람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따뜻한 마을로 거듭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농촌의 긴급한 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촌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현장 행정 추진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남원시, 6월 13일까지 도로 무단적치물 특별단속

남원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도로위에 방치된 무단적치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동 지역 내 보행자의 통행장애 및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인 도로의 불법적치물을 사전에 제거, 시민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은 도로변 및 인도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화분, 페타이어, 폐 자전거, 러버콘 등으로 시는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합동점검으로 무단적치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사전 계도 및 안내를 통해 불법적치물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나, 무단적치물 제거 불응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단속 나서

남원시는 지난 20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관내 중심가 및 학교 주변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남원시 여성가족과와 보건소,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경찰서,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 기관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에서는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홍보 및 계도 △호프집, 카페,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등에서의 청



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위반 여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에 대한 부착 여부 및 규격 적정성 등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지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엔미어린이집 소속 원아들, '전북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남원 대표 출전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오는 6월 13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23회 전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유엔미어린이집 소속 6·7세 원아 28명이 남원 대표로 출전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나의 꿈 소방관" 풍요에 맞춰 경쾌한 율동과 함께 무대에 올라, 밝고 환한 목소리로 안전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으로, 어린이들은 지난 한 달간 소방안전 교육과 반복 연습을 병행하며,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과 소방관 직업의 소중함을 익혀왔다.

특히 아이들 특유의 순수함과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이 더해진 무대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3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전북도 내 유치부·초등부 대표팀 총 15팀이 참여해 '안전'을 주제로 감동과



오는 6월 13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23회 전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유엔미어린이집 소속 6·7세 원아 28명이 남원 대표로 출전한다.

재미를 겸비한 무대를 선보이는 뜻깊은 행사다.

김승현 서장은 "어린 꿈나무들이 '나의 꿈 소방관'을 통해 안전의 가치

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럽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 행사 개최

순창군은 22일 순창군청 잔디광장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고, 판매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장이 주관하고, 해피드림(익산)을 비롯한 도내 7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사무용품, 식료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순창군청과 각 읍면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제품을 관람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불조심 어린이 마당 참가 학급 모집

순창소방서는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의식 함양과 화재예방 습관 형성을 위한 '제25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 학급을 다음달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상 앞 교육을 넘어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배우는 '참여형 안전교육'으로, 화재·재난·생활안전에 관한 기초 지식을 게임처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5학년 17개 학급 전원이 원칙이며, 학급 인원이 14명 미만인 경우에는 2개 학급 또는 4~6학년 전체를 합쳐 신청할 수 있다. 참가 학급은 7월 중 배우되는 적용 교재 '불조심 길라잡이'를 활용해 9월 8일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9월 9일 학급 교실에서 예선 평가를 진행한다. 시·도별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우수 학급은 9월 25일 본선에 진출해 전국 단위의 안전 퀴즈 대결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및 12개 순해보험사가 후원한다. 평가 방식은 25분량의 객관식 퀴즈로 이루어지며, 학급 평균점수에 따라 수상 학급이 결정된다. 참가 신청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점검 추진

임실군이 학교급식 식재료(지역산 가공품) 공급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4명(임실군 2, 임실교육지원청 1, 영양교사 1)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 19과 20일에 걸쳐 원료수불대장,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등 서류 검토와 함께 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 영업장의 위생 상태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지역산 가공품 공급업체 점검은 도내산 원료를 일일 판매에서 가공하여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생산 품목은 유제품류, 두부류, 장류, 음료 등이 있다.

점검 결과 공급업체 대부분이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결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조치 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대상포진 예방접종 60세 이상 확대

남원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접종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60세 이상 저소득층(보. 12. 31.이전 출생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세 이상 시민(보. 12. 31. 이전 출생자)이며, 지원백신은 생백신(조스타박스, 1회 접종)과 사백신(싱그릭스, 2회 접종)으로 △60세 이상 저소득층은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하고, 생백신은 무료, 사백신은 70% 지원(1회당 53,000원, 총 2회 접종)한다.

단 60세 이상 시민은 백신비만큼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사백신 접종(1회당 178,000원, 총 2회 접종)만 가능하며, 접종은 관내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가능하며,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